

말뚝 봉사 할머니·엄마 문병 딸...그게 마지막일 줄이야

광주 학동 건물 붕괴 참사
희생자들 안타까운 사연

요양병원에 계신 엄마 얼굴을 보고 귀가하던 딸, 거동 불편한 또래 노인들과 말뚝해 준 뒤 돌아 가던 할머니, 방과후 버스에 탄 고교생... 버스를 타고 귀가하던 평범한 이웃들이 갑자기 무너져 내린 건물에 허망하게 목숨을 잃거나 중상을 당했다.

최악의 '인재' (人災)로 기록될 지난 9일의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철거 건물 붕괴 사고는 아직 피지도 못한 10대 고교생에서부터 봉사활동으로 인생의 황혼기를 보내고 있는 70대까지 모두 9명이나 되는 소중한 목숨을 앗아갔다.

숨진 이들은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기독병원 에 나뉘어 안치됐으며 광주 동구청 광장에 합동 분향소가 마련됐다.

10일 오후 2시,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부라 부라 차려진 분향소에는 터져 나오는 통곡을 간신히 틀어막고 오열하는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사망자 가운데 맨 마지막에 수습된 열일곱 살 A군의 영정이 분향소에 놓이자 외할아버지는 말 없이 다가와 손주 얼굴을 쓰다듬었다. 베레모를 눌러 쓰고 한껏 멋을 낸 A군은 액자 속에서 함박 웃음을 짓고 있었다.

A군 어머니는 경찰 조사를 마친 뒤, 뒤늦게 분향소에 들어서자마자 영정 속 아들의 얼굴을 보며 쓰러져 오열했다.

"○○아 네가 왜 여기 있지. 왜 여기 있어."

고교 2학년인 A군은 사고 당일 비대면 수업이 있는 날이었지만 학교에서 음악 동아리 활동을 한 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참변을 당했다. 어렵게 얻은



10일 오후 광주시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철거 건물 붕괴 희생자들이 안치된 분향소에서 사고 현장서 맨 마지막에 수습된 A(17)군의 영정을 어루만지며 유가족이 오열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

아버지는 중상...요양병원 퇴원 엄마 반겨주는 이 없어 의사 꿈 꾸던 늦둥이 외아들, 동아리 활동 후 귀가하다 평범한 이웃들 허망하게 목숨 잃어...분향소 통곡 가득

늦둥이 외아들은 집안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랐다. 공부를 잘해 외할아버지에게 의사가 되고 싶다고 말하곤 했다.

"5시 뉴스를 보고 있는데 손주 사는 동네가 나와서 사위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사위도 아들 걱정이 됐던지 사고 현장으로 나갔는데, 거기에서 손주가 잔해 더미에 갇혀있는 걸 알았대요."

어머니의 퇴원을 하루 앞두고 아버지와 병문안을

다녀온 효심 깊은 30대 취업준비생 B(여·31)씨도 참변에 슬러졌다.

침수를 앞둔 아버지는 함께 사고를 당해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가족들은 아버지에게 차마 B씨의 죽음을 알리지 못한 상태다.

"다섯 자매 가운데 막내인 차체는 부모님을 살릴 힘 모시는 효녀였어요. 아버지 사업을 도우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취업준비까지 하며 바쁜 나날을



정세균 전 총리가 10일 오후 광주시 동구청에 설치된 재개발 붕괴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내고 있었어요. 항상 웃는 낮이었던 처제가 처참히 깔린 모습이 머리 속에서 잊혀지지 않습니다. 장모님이 오늘 퇴원하셨는데 집에 반겨주는 사람이 없네요."

이날 유가족들은 이번 참사는 조금만 신경 쓰면 막을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김모(52)씨는 "내 조카는 시내버스를 탄 죄박에 없다. 철거 현장의 안전을 소홀히 한 업체와 당국이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신모(46)씨는 "이번 사고에 대한 실감이 전혀 나지 않을 정도로 어이가 없고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전남대병원에서 안치된 C(여·72)씨는 노인복지회관에서 또래 어르신들의 말뚝을 해준 뒤, 버스를 타고 귀가하던 중 변을 당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그는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던

노인 일자리 기회를 얻어 일하는 기쁨을 누리왔다. 주 5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동구 곳곳의 독거노인 댁을 돌러 안부를 묻고, 말뚝을 해 주는 일이었다.

C씨는 계림동의 방문 가정 4곳을 모두 둘러 말뚝을 해준 뒤 윤림54번 버스에 탑승했으나, 자택을 불과 1.8km 앞두고 남편과 함께 살던 집에는 끝내 도착할 수 없었다.

우경숙 동구노인복지회관 사무국장은 "고령에도 불구하고 동구 곳곳으로 매일 출·퇴근하면서 기꺼이 어르신들의 말뚝을 해 주시던 분이였다"며 "늘 열정 넘치시고 건강하시던 분이 하루아침에 큰 사고를 당하시니 충격적이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전국 철거공사현장 긴급 안전진단 실시

노형욱 국토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전국 철거공사 현장에 대한 긴급 안전진단을 각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사상자 17명이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지역 철거건물 붕괴 현장을 이날 방문해 참사 사후 대책을 묻는 기자들에게 이같이 답했다.

노 장관은 "상세한 내용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논의한 다음 알리겠다"며 "원인 규명에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불의의 사고로 인해 유명을 달리한 분들의 깊은 애도의 말

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참사로 이어진 철거 공사 가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이뤄졌고 현장 감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형식상으로는 요건을 갖춘 것 같은데 저희도 기술적인 검토를 하겠지만 경찰 수사 다음에 명확한 사실관계가 나오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조속한 사고 수습과 향후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위해 노 장관을 본부장으로 한 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연합뉴스

"아이들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게 노력"

광주 교육계 애도

광주지역 교육계가 지난 9일 학동 재개발사업지역의 철거 건물 붕괴로 고교생을 포함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 애도하고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창 부푼 꿈을 키워나가는 열일곱 살 학생이 참담한 사고에 휘말려 희생됐다는 소식은 광주의 많은 교사에게 깊은 상처와 슬픔이 됐다"며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자 치유 등에 광주 시민의 일원으로서 적극 관심을 가지고 연대할 것이며,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교원단체총연합회도 10일 논평을 내고 "동구 학동에서 발생한 철거 건물 붕괴로 인해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상을 당한 참담한 사고에 대해 광주의 모든 교육자와 함께 큰 슬픔을 갖고 희생된 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교총은 "무엇보다 희생자에 고교생이 있어 교육자들의 마음은 더욱 안타깝고 슬프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합당하고 엄중한 책임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교사 노조도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설마 의식'이 끼여들 틈을 주지 않도록, 처벌의 성격을 띤 고액의 손해배상을 부과해 유사한 불법행위의 재발을 예방하는 취지의 법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산업, 교통, 건설, 국방 영역에서부터 의료, 천재지변, 교육 영역까지 영역별로 '안전 사회' 매뉴얼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전남, 오늘 천둥·번개 동반 강한 비

시간당 30~120mm

광주·전남지역에 11일 밤까지 강한 바람과 함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10일 기상청에 따르면 11일 낮까지 고온 다습한 공기가 강한 남풍을 따라 유입되고, 지형효과가 더해지는 전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다.

이번 비는 11일 밤까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전남 해안·지리산 부근에는 50~120mm가 내리겠고, 나머지 광주와 전남 지역은 30~80mm의 비가 오겠다.

이번 비는 강한 바람을 동반하고 있어 시설물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는 게 기상청의 당부이다.

전남해안에는 시속 35~60km/h(10~16m/s)의 바람이 불겠다. 순간 70km/h(20m/s)바람이 부는 곳도 있겠다. 그 외의 지역에서도 순간풍속 55km/h(15m/s)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도 예상된다.

11일 아침 최저기온은 20~21도, 낮 최고기온은 23~28도로 분포되고 12일은 아침최저기온은 18~21도, 낮최고기온은 26~31도가 되겠다.

11일 새벽 남해서부 동쪽 먼바다와 전남동부 남해 앞바다에 풍랑예비 특보가 내려졌고, 전남 해안에는 호우예비특보가 내려졌다.

기상청 관계자는 "하천이나 계곡 등에서는 갑자기 물이 불어나는 곳이 있겠으니, 위험지역에 접근하지 않는 등 야영이나 외부활동을 자제하여 안전 사고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신재생 에너지 · 건설 · 부동산 개 발

탑인프라

탑인프라

문의전화 1800-6069
www.topinfra.co.kr

본 사 | 광주광역시 북구 추암로 69(대촌동)
서울지사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오피런스 1201호
나주공장 | 전라남도 나주시 혁신산단3길 32-6(동수동)